

중국, P-X 건설공사 반대 15명 사망

Sinopec, Maoming 지방정부와 합작으로 추진 ... 건설 백지화 시사

중국 Guangdong 남서부 Maoming에서 촉발된 석유화학 플랜트 건설 반대 시위가 알려진 것보다 심각해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타이완 자유시보에 따르면, 3월30일부터 3일 동안 계속된 시위를 강제 진압하는 과정에서 15명이 사망하고 300여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위 참가자도 중국정부가 공개한 수백 명 수준이 아닌 2만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중국정부는 반대 시위가 격화되자 탱크와 야전군용 무장차량을 동원해 시위에 참여한 주민들을 진압했고, 관련 소식이 퍼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주요 온라인 사이트에 대한 검열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위는 Maoming 지방정부가 Sinopec(China Petroleum & Chemical)과 합작으로 P-X(Para-Xylene) 플랜트 건설을 추진한 것이 발단이 됐다.

Maoming 주민들은 화학섬유와 플라스틱 병(Bottle)의 원료로 투입되는 P-X가 독성이 강한 발암물질이라고 주장하며 공장 건설계획 철회를 요구하는 시위를 시작했다.

Maoming 지방정부 관계자는 “소수의 불법 분자들이 군중을 선동해 돌과 생수통을 던지는 등 과격시위를 주도했다”면서 “시위 과정에서 사망자는 없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시위는 Guangzhou까지 확산됐지만 Maoming 지방정부가 P-X 플랜트 건설 계획을 백지화할 수도 있음을 시사하면서 안정을 되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4/04/03>